

EU, 농산물시장 및 농가소득 중장기 전망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8년 동안의 유럽 농산물 시장 및 농가 소득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농업 생산력과 생산 구조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늘어난 EU-25의 향후 농업 관련 전망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라는 점에 이 자료의 의의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EU-25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이번 시장 전망 예측치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EU의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장 상황을 예측한 것이다. 세계 농산물 시장은 수요와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교역 정책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의 결정사항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새로운 다자간 협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EU의 곡물 시장 중기 전망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국제시장 상황이 더 나아지는 동시에 휴경률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낙관적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2002년 유럽의 곡물 생산량은 2억 6,300만 톤이었는데 2003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2억 3,000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 들어서는 기상 조건이 좋았고 의무 휴경률이 낮아지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증하여 2억 8,500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이중 6,300만 톤은 EU 신규 가입 국가들에서 생산된 양이다. 올해 2005년에는 생산량이 2

억 6,100만 톤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휴경률이 높아졌고 많은 국가들이 생산과 보조금을 연계시키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에 형성된 많은 양의 곡물 재고로 인해 2006년까지 두 해 동안 곡물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무적 휴경, 디커플링 보조금 정책 도입, 평년 수준의 수확량 전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만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에는,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사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과 EU의 수출 기회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시장의 우호적인 조건 그리고 소폭이기는 하지만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곡물 재고 수준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EU 곡물 시장의 전반적인 균형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큰 곡물, 특히 대맥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견할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조 문제에 봉착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중부 내륙 유럽의 새로운 회원국들의 경우 연질 소맥과 옥수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

유지류 부문에 대한 EU 시장 전망은 생산성 증대와 국제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조건들로부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류 생산량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는 여전히 유지류 상품을 많이 수입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곡물과 유지류에 대한 시장 전망은 회원국들의 바이오 연료(biofuel) 지침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U의 쇠고기 부문은 최근 수년 간의 극단적인 시장 상황이 끝나고 점차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다. 쇠고기 시장은 2001년에 있었던 두 번째 광우병 파동과 구제역 발병, 그리고 2003년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

로 큰 충격을 받았었다.

EU-25 회원국들의 쇠고기 소비량은 광우병 파동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왔으며, 2004년의 생산량은 2003년에 비해 더 많았다. 2012년까지 쇠고기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7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낙농가들의 구조 조정 그리고 단일농장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EU 역내 공급량은 수요와 거의 일치할 것이며 수요 또한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관세 삭감 없이 보다 많은 양의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다. 특히 남미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 및 소비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점증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과거 10년간의 증가세보다는 느린 속도의 증가가 될 것이다. 이는 신규 회원국들과 구 회원국들 사이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장기 동향에 대한 분석과 암양 보조금 정책의 디커플링을 고려할 때, 양과 염소 고기의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육류 소비량은 2004년에는 1인당 87.4kg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89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5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는 EU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육류이다. 그 다음은 가금육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6년까지는 돼지고기에 이어 소비량 2위를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던 것을 역전시킨 것이다.

EU-25 국가들에서의 우유 생산량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유 쿼터의 증가에 힘입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 생산량이 1억 4,5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EU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신규 회원국들의 우유 생산량은 거의 2,200만 톤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

할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수준의 우유 생산 쿼터 등 신규 회원국들에게 제공되던 정책 지원이 우유 생산 보조금의 감축 등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규 회원국들의 버터 생산량은 EU 수준에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4년의 급격한 가격 하락 이후에 EU-25 회원국들의 버터 생산량은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즈 생산과 소비는 2002년의 감소 이후 계속되어 온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점진적인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다. 낙농제품 형태로 표현되는 EU 역내 우유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쿼터제에 의해 공급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버터 수출은 위축될 것이고 치즈 수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가할 것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EU의 농업 소득은 앞서 제시한 시장 전망과 금융 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중기적인 소득 전망은 약간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U-25 회원국들에서의 1노동단위당 실질 농업소득은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반적인 수치는 EU-15 회원국들과 신규 회원국들 사이의 차이를 감추는 것이다. EU-15 회원국들의 농업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신규 회원국들의 농업 소득 증가율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 50.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전망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신규 회원국들의 그 같은 소득 증가는 공동농업정책의 지원, 유럽 단일 시장에의 진입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규 회원국들의 농업 생산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